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5.2

| | | | | | |
|------|---------|-------|---------------------|------|------------------------|
| 담당부서 | 건설경제연구실 | 연구책임자 |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 전화번호 | 3441-0611 3441-0641 |
|------|---------|-------|---------------------|------|------------------------|

제 목: 2012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4월 CBSI 3.5p 하락한 66.4 기록

-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 및
특별한 건설경기 개선요인 부재 영향, 3개월만에 다시 하락 -

- 2012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5p 하락한 66.4를 기록함.
- 이로써 지난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한 CBSI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개월만에 다시 하락함. 또한, CBSI가 올 들어 70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60선에 머물.
- 통상 4월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CBSI가 2개월 연속 상승한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였고, 계절적 요인 이외에는 건설경기를 개선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것도 CBSI 상승세를 계속 견인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경기의 침체가 아직 여전한 가운데, 작년 한해 회복세를 보인 지방의 주택경기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했고, 조기집행을 예고한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물량도 건설업체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 것이 CBS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8.1p 상승한 74.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8.1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5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4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5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4월 CBSI 실적치가 전월 대비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5월 CBSI는 전월비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하락한 반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3월 전월비 7.2p 하락한 85.7을 기록했는데, 4월에도 전월비 14.3p 하락한 71.4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으며, 4월 지수 하락을 주도함.
- 지난 3월에 전월비 9.7p 상승한 68.0을 기록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4월에도 4.0p 상승한 72.0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전월비 8.8p, 7.8p 상승한데 이어 4월에도 전월비 0.7p 상승한 54.1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함.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에 불과해 여전히 가장 저조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9, 100.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4, 67.4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5.2, 84.8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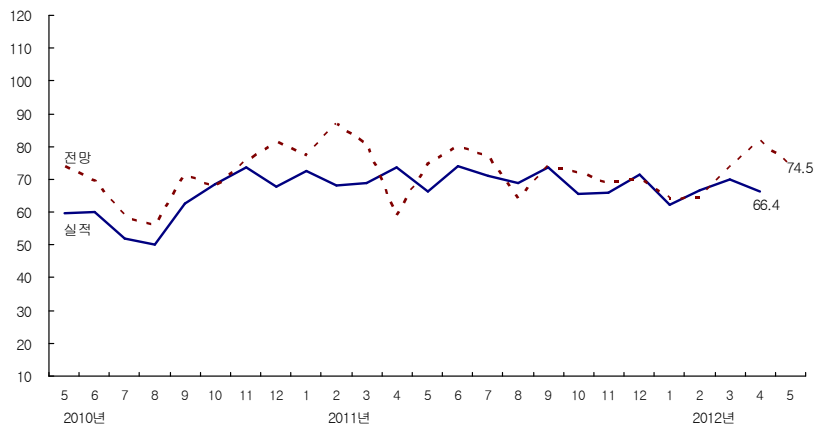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4월 CBSI 3.5p 하락한 66.4 기록, 3개월만에 다시 하락

- 2012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5p 하락한 66.4를 기록함.
- 이로써 지난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한 CBSI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개월만에 다시 하락함. 또한, CBSI가 올 들어 70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60선에 머물.
- 통상 4월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CBSI가 2개월 연속 상승한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였고, 계절적 요인 이외에는 건설경기를 개선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것도 CBSI 상승세를 계속 견인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경기의 침체가 아직 여전한 가운데, 작년 한 해 회복세를 보인 지방의 주택경기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했고, 조기집행을 예고한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물량도 건설업체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 것이 CBSI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하락한 반면,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3월 전월비 7.2p 하락한 85.7을 기록했는데, 4월에도 전월비 14.3p 하락한 71.4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으며, 4월 지수 하락을 주도함.
- 지난 3월에 전월비 9.7p 상승한 68.0을 기록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4월에도 4.0p 상승한 72.0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전월비 8.8p, 7.8p 상승한데 이어 4월에도 전월비 0.7p 상승한 54.1을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함.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에 불과해 여전히 가장 저조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 구 분 | | 2011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2년 1월 | 2월 | 3월 | 4월 | | 5월 전망 |
|-----|----|-------------|------|------|-------|------|------|------|-------------|------|------|------|-----------|----------|
| | | | | | | | | | | | | 실적 | 전월 전망치 | |
| 총 합 | | 74.1 | 71.1 | 68.9 | 73.8 | 65.4 | 66.0 | 71.6 | 62.3 | 66.7 | 69.9 | 66.4 | 81.7 | 74.5 |
| 규모별 | 대형 | 83.3 | 84.6 | 76.9 | 100.0 | 84.6 | 84.6 | 83.3 | 76.9 | 92.9 | 85.7 | 71.4 | 92.9 | 78.6 |
| | 중견 | 73.9 | 72.0 | 75.0 | 73.1 | 68.0 | 64.0 | 68.0 | 69.6 | 58.3 | 68.0 | 72.0 | 84.0 | 78.3 |
| | 중소 | 63.6 | 54.4 | 52.6 | 43.9 | 40.0 | 46.4 | 61.8 | 36.8 | 45.6 | 53.4 | 54.1 | 66.1 | 65.5 |
| 지역별 | 서울 | 77.4 | 80.2 | 78.4 | 91.6 | 74.1 | 73.9 | 72.5 | 73.7 | 81.4 | 74.7 | 74.1 | 83.4 | 82.0 |
| | 지방 | 71.2 | 57.2 | 54.6 | 47.5 | 52.7 | 53.8 | 70.1 | 47.5 | 46.5 | 62.5 | 54.9 | 81.1 | 63.5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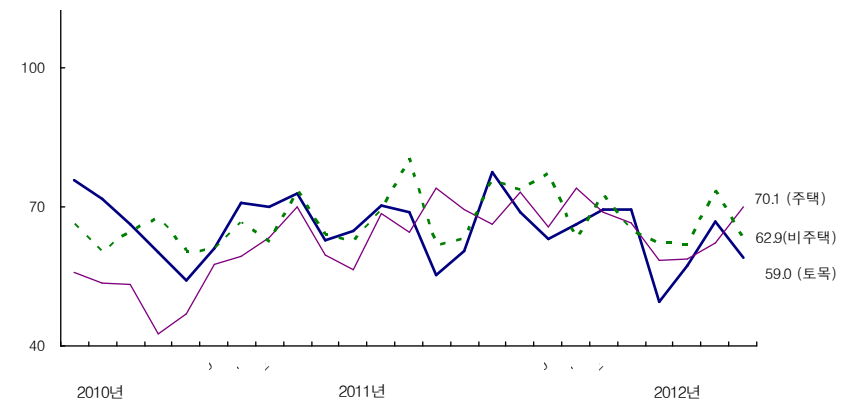
- 한편,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8.1p 상승한 74.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8.1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5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4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5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4월 CBSI 실적치가 전월 대비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5월 CBSI는 전월비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4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74.1을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는 지수는 7.6p 감소한 54.9로 지방업체의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0.6p 감소한 74.1로 지난 3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3월에는 전월보다 16.0p 증가한 62.5를 기록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4월에는 7.6p 하락한 54.9를 기록,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4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0.3p 증가한 67.2

- 4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0.3p 증가한 67.2를 기록,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70선 미만으로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물량지수는 지난 1월에 56.6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월과 3월 각각 4.8p, 5.5p 증가하였음. 4월에는 지수가 0.3p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기대와 달리 지수가 70선 미만인 67.2에 불과함.
- 또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4월 공사 물량지수가 70선 이하를 기록했던 것은 2004년 4월 64.6, 2008년 4월 63.4로 단 두 번 이었던 것을 감안, 올 4월 물량 상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7.9p 증가한 70.1로 공종별로는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7.9p, 10.5p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전월보다 7.9p 증가한 70.1로 지난 2011년 10월 74.0 이후 6개월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최근 분양물량의 증가로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70선 초반에 불과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토목 물량지수는 정부 토목공사 물량의 감소로 전월 대비 7.9p 하락한 59.0을 기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0.5p 하락한 62.9를 기록, 공중 중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전월 대비 12.0p, 4.1p 증가해 지수가 개선되었으나,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4.3p 하락, 결국 대형업체 지수가 전체 공사 물량지수 하락을 주도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4.3p 하락한 71.4를 기록함.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4.2p 상승했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 대비 7.9p, 21.4p 하락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3월 보다 12.0p 상승한 72.0으로 지난 2011년 9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공중별로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19.7p 상승한 73.9로 주택 물량지수 상승이 중견업체 지수 회복을 이끌. 다만, 나머지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13.0p, 2.6p 하락해 부진하였음.

< 공사물량 BSI >

| 구 분 | | 총합 | 규 모 | | | 지 역 별 | |
|-----|----|------|-------|------|------|-------|------|
|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전체 | 실적 | 67.2 | 71.4 | 72.0 | 56.7 | 77.3 | 52.2 |
| | 전망 | 80.6 | 85.7 | 91.7 | 62.1 | 89.2 | 67.7 |
| 토목 | 실적 | 59.0 | 64.3 | 60.9 | 50.8 | 66.7 | 47.6 |
| | 전망 | 69.3 | 64.3 | 81.8 | 61.0 | 71.0 | 66.9 |
| 주택 | 실적 | 70.1 | 92.9 | 73.9 | 39.2 | 83.7 | 50.0 |
| | 전망 | 79.6 | 107.1 | 77.3 | 50.0 | 93.8 | 58.2 |
| 비주택 | 실적 | 62.9 | 64.3 | 68.2 | 55.2 | 71.8 | 49.5 |
| | 전망 | 71.8 | 78.6 | 76.2 | 58.9 | 82.3 | 56.1 |

주 : 실적은 2012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

- 한편, 중소기업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1p 증가한 56.7을 기록, 올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7.2p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9.7p 감소한 52.2로 지방업체의 침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7.2p 증가한 77.3을 기록함. 주택물량지수가 전월 보다 15.0p나 증가한 83.7로 서울업체의 주택물량 상황이 양호해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지난 3월 전월보다 17.4p 증가한 61.9를 기록하였으나, 4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9.7p 하락한 52.2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2012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4월 실적치보다 13.4p 증가한 80.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2년 간 물량지수가 80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으며, 비록 80선 이상을 예측하였어도 70선 초·중반에 그쳤던 점을 감안, 5월 물량지수는 실질적으로 70선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토목물량 지수는 4월보다 10.3p 증가한 69.3을 주택 물량지수는 4월보다 9.5p 증가한 79.6을, 비주택 물량 지수는 8.9p 증가한 71.8로 각각 전망함.
 - 공중별로 모두 8~10p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주택 물량지수가 80선에 근접한 79.6으로 예상하고 있어 타 공중에 비해 주택 물량지수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9, 100.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4, 67.4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5.2, 84.8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 구 분 | | | 종합 | 규 모 별 | | | 지 역 별 | |
|-----|------------|----|-------|-------|-------|------|-------|-------|
| |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자금 | 공사대금 수급 | 실적 | 85.2 | 100.0 | 83.3 | 70.0 | 90.0 | 80.3 |
| | | 전망 | 85.4 | 100.0 | 78.3 | 76.3 | 89.4 | 79.5 |
| | 자금조달 | 실적 | 84.8 | 100.0 | 84.0 | 67.8 | 84.5 | 86.8 |
| | | 전망 | 84.6 | 100.0 | 79.2 | 72.9 | 82.8 | 86.8 |
| 인력 | 수급 | 실적 | 99.9 | 100.0 | 104.0 | 95.1 | 107.4 | 88.8 |
| | | 전망 | 97.4 | 100.0 | 100.0 | 91.4 | 105.7 | 85.2 |
| | 인건비 | 실적 | 87.4 | 85.7 | 104.0 | 70.5 | 100.4 | 68.2 |
| | | 전망 | 87.7 | 85.7 | 104.2 | 71.2 | 100.7 | 68.6 |
| 자재 | 수급 | 실적 | 100.1 | 107.1 | 100.0 | 91.8 | 101.9 | 97.3 |
| | | 전망 | 102.9 | 107.1 | 104.2 | 96.6 | 104.2 | 100.9 |
| | 비용 | 실적 | 67.4 | 71.4 | 80.0 | 48.3 | 79.4 | 49.7 |
| | | 전망 | 74.3 | 78.6 | 87.5 | 54.2 | 85.8 | 57.5 |

주 : 실적은 2012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